

정비석 단편소설에 나타난 애정의 윤리와 주체의 문제

김현주*

1. 들어가며
2. 회귀점으로서의 고향과 본능적 주체
3. 열정적 사랑의 추구하고 가족 윤리의 경계에 선 낭만적 주체
4. 애정의 윤리와 유기적으로 조화되는 국가라는 대주체
 - 4-1. 기술 문명의 도구적 합리성의 승리와 사랑의 주체
 - 4-2. 관능을 절조하는 동양적 도의의 주체
5. 맺음말

국문요약

이 글은 정비석의 해방 전 작품인 초기 단편소설을 대상으로, 애정의 윤리와 주체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1930년대 고향상실이 진행되는 시기에 정비석은 고향으로의 회귀를 욕망하는 본능적 주체를 통해 애정과 관능미의 조화를 소망한다. 그가 그려낸 고향 세계는 「성황당」처럼 원초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즉자적 공간으로, 이 공간에서 주체는 신앙의 절대적 대상이나 숭고한 자연적 질서의 한 부분에 불과한 반근대적 주체로 존재한다. 반면에 근대적 제도와 문명 속에서 근대적 개인으로 탄생한 낭만적 주체들은 「애정」에서처럼 고향으로의 회귀보다는 자아의 극단적 확장을 욕망한다. 자아와 세계의 이자적 관계인 낭만적 주체는 관능과 열정적 사랑을 욕망하지만, 늘 현실적 규제 장치인 봉건적 윤리와의 경계에서 비밀스럽고도 조심스럽게 존재할 뿐이다.

일제 말기 소설에서는 본능적 주체와 낭만적 주체가 지녔던 애정의 감각과 윤리가 국가라는 대주체와 유기적으로 통합된다. 국가라는 대주체로 고

* 한양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향의 세계와 자아의 세계가 변증법적 방식으로 통합을 꾀하는데, 한편으로는 「삼대」에서 보듯이 애정의 당사자가 열정적 사랑을 하지만 과학기술의 합리성에 의거해 국가라는 대주체의 일원으로 기꺼이 투신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국가로의 열정적인 투신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의 전체성이 존재자들의 조화나 상호관계를 사상한 채 사회진화론에 의지해 물리적 힘들의 우열의 대결이라는 운동에 의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월」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애정의 당사자는 관능을 절조하고 인종과 희생의 정신을 가진 동양적인 도의의 세계를 복원함으로써 국가라는 대주체로 통합된다. 향토성과 동양적인 정신, 전통적인 도의를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다양성을 전체성이라는 일반의지로 포섭되고 있다.

(주제어 : 정비석, 초기소설, 단편소설, 애정, 윤리, 주체, 고향, 본능, 열정적 사랑, 낭만, 국가)

1. 들어가며

1911년 평북 의주에서 태어난 정비석은 일본 유학 시절 ‘납프’에서 발간하는 『문학신문』 공모에 1932년 소설 「朝鮮の子供から日本の子供たち」이 당선되면서 문학계에 발을 들여놓는다.¹⁾ 1935년 『매일신보』 신춘문예에 콩트 「여자」,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졸곡제」 당선으로 조선문단에 등장한다. 그러나 1937년 「성황당」, 1938년 「애증도」가 연이어 『조선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당선되면서 비로소 촉망 받는 신예작가로 본격적인 문단 활동을 시작한다.

정비석이 소설을 창작한 시기가 1932년부터 1991년까지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²⁾ 그의 해방기 이전 소설은 초기소설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시기에

1) 정비석, 「집필여담 작가로 세상에 나오기까지」, 『소설작법』, 문성당, 1957, 257쪽.
2) 정비석은 한국 문단에서는 1933년 「자장가」란 시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1991년 사망 때까지 왕성하게 창작 활동을 했으며, 일제 말기에 잠시 기자 생활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창작에만 몰두한 작가이다.

단편소설 50편, 중·장편소설 3편(『금단의 유역』, 『화풍』, 『청춘의 윤리』)이 발표된다.³⁾ 정비석은 160여 편의 소설을 썼으며, 그 중 1/3정도의 소설을 초기에 창작하였다. 초기에 이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의 소설의 경향과 특징을 정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석의 초기소설 전체를 아우르는 논의는 전무하다. 초기소설을 다루더라도 몇몇 작품만 다루거나 해방 후 윤향한 판본을 텍스트로 사용하기도 하여, 정비석 초기소설의 특성을 드러내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보인다.⁴⁾ 특히 초기소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황당 에 대한 연구」나⁵⁾ 일제 말기 친일 논의에 몰려 있다.⁶⁾ 이 연구 역시 당대 문단적 상황과의 연계성이나 해당 작품에 대한 해석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정비석 초기소설에 대한 연구는 10여 동안의 정비석 초기소설을 포괄적으로 다루거나, 그것을 관통하는 내적 연계성이나 변화의 과정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정비석 초기소설에 대해서, 일찍이 동시대의 비평가인 백철은 『신문학사조사』에서 이 시기 “정비석의 작품으로선

-
- 3) 다른 대중소설과 마찬가지로 정비석의 소설 역시 판본 확정이나 편수는 아직 진행형이다. 그가 콩트를 “한 사건의 어느 순간적인 모멘트를 붙잡”은 장편소설(掌篇小說)이라고 했기에, 단편소설 편수에 포함시켰다. 정비석, 장편소설과 단편소설, 『소설작법』, 신대한도서주식회사, 1946, 224쪽.
 - 4) 정비석의 초기소설에 대해 이미숙은 6편을, 김지영은 중·장편소설 3편을, 정중현은 7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미숙, 정비석 초기소설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1996; 김지영, 정비석 초기연애소설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99; 정중현, 미국 해계모니 하 한국문화 재편의 젠더 정치학, 『한국문학연구』 35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8.
 - 5) 김병욱, 정비석의 문학<성황당>을 중심으로, 『월간문학』 1971. 8; 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53; 이어령, 성황당고, 『한국단편문학 100선』, 경미출판사, 1984; 김재남, 성황당에 나타난 작가의식, 『세종어문연구』, 3·4합번호, 세종어문학회, 1987; 정한숙, 『현대한국문학사』, 고려대 출판부, 1991; 김홍영, 정비석의 <성황당>연구, 1993; 노상래, 『정비석 소설 연구』 『성황당』의 욕망구조를 중심으로; 오양진, 정비석의 「성황당 과 김동리의 산화」에 나타난 자연의 의미, 1998; 차봉준, 정비석의 <성황당>에 나타난 생태학적 인식 연구, 『인문학연구』, 숭실대, 2000; 안영숙, 정비석 문학의 에로티시즘 연구: 성황당과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충남대 석사논문, 2000; 김미영, 1930년대 후반기 소설에 나타난 생태학적 상상력, 『비교문학』 35권, 2005.
 - 6)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79; 김병걸, 『친일문학작품선집 2』, 실천문화사, 1986; 이원경, 일제말기 “동양론”의 수용과 소설적 형상화, 『현대소설연구』 4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한민주, 신체의 수사학과 남성성의 심미화, 『여성문학연구』 14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저기압」, 「이 분위기」, 「삼대」 등과 같이 이 시대의 현실에 대한 지식인의 고민과 사상면을 그린 예도 있고 「강태공」, 「귀불귀」, 「고고」, 「국화진열」 등과 같이 반신변소설적인 경향을 보인 것도 있으나 그의 초기 “작품 세계는 애정세계”라고 특징짓는다.⁷⁾ 김남천 역시 「성황당」을 기점으로 “작가의 흥미는 일로(一路) 요파, 「애증도」, 「비밀 같은 화려체까지 경험하여서 「잡어」의 세계⁸⁾인 애정세계에 도달하였다고 정비석의 초기소설에 대해 짧게 평한다.

초기소설의 특징을 정비석 스스로가 “이원조씨로부터 나의 작품은 거이 다 애욕문제를 취급한 것이란 말을 들었습니다만은 실상도 그렸습니다. 이 애욕문제란 우리들의 실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매력”도 느낀다고 시인하였듯이,⁹⁾ 그의 초기소설 뿐만 아니라 그의 소설 분류는 남녀 간의 애욕의 문제이다. 그의 소설은 남녀 간의 관계를 실생활의 핵심에 위치치우고 “인간의 근본적 생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연애나 “성적 문제를 제외한다는 것이 거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¹⁰⁾ 그는 연애를 “시대에 예민하고 시대를 솔직히 표현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소설을 통해 “새로운 연애에 대한 지시와 계발, 낡은 남녀관계에 대한 지적과 비판, 이러한 모든 것은 남녀 관계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¹¹⁾ 그러므로 정비석의 소설에 나타난 애욕의 세계는 당대의 사회적 의식과 작가의 현실인식을 첨예하게 투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비석 소설에서 애정관계는 다양한 애정의 방식과 윤리적·시대적 감각을 드러내고, 다양한 주체의식과 주체의 문제를 나타낸다. 예컨대 조선문단 소개작인 「여자」에서 “처녀는 남자에게 대하여 여왕과 갖치 거만하였고 고양이와 갖치 교활하였다. 그러나 이튿날 아츰 여자가자기의 단 한가지보배인 정조를 맞치고나자 그는 어제까지 노예로 알든 갖튼 사내 압해서도 양과 갖치 온순하여야 할 숙명적 운명을 깨달았다”¹²⁾라고 시작하고 있다. 허룻밤

7) 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83, 535쪽.

8) 김남천, 신진소설가의 작품세계, 『인문평론』, 1940.2, 63쪽.

9) 정비석, 신진작가 좌담회, 『조광』, 5권 1호, 1939.1, 245쪽.

10) 정비석, 장편소설과 성문제, 『백민』, 6권 3호, 1950.5, 153쪽.

11) 정비석, 연애소설, 일반 오해 일소하자, 『조선일보』, 1937.9.12.

을 같이 보내고 나자 애정의 주체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되는 젠더의 정치학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비석은 애욕의 관계를 다루면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 가족 구성과 관계, 윤리와 도덕에 관심뿐만 아니라, 애정의 윤리와 시대적 상황의 결합 양상, 그리고 주체의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이는 소설을 "단순히 사회의 반영만이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도 적극적으로 한 거름 더 나가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첨가하지 않으면 안" ¹³⁾된다는 작가의식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그가 추구하는 애욕의 문제에는 당대의 다양한 문제가 재현되고 새로운 윤리적 감각과 시대의식이 스며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애정관계에 드러난 애정의 방식이나 윤리, 주체의 문제를 통해 당대의 사회적 의식이나 작가의식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당연히 대중문학사 내지 한국문학사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정비석 초기소설의 내적 연계성과 변화의 과정을 포착하기 위해, 단편소설을 대상으로 애정의 윤리와 주체의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¹⁴⁾ 이 과정에서 작가의 윤리관과 현실인식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내면에 깔려 있는 젠더 정치학을 독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정치하게 분석하기 위해 「성황당」처럼 고향상실 시대에 원초적 관능을 부각한 작품 계열, 「자매」처럼 열정적 사랑을 추구하는 낭만적 주체가 갈등하는 작품 계열, 그리고 「삼대」 이후 개인의 애정과 윤리가 국가라는 대주체로 회수되는 작품 계열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12) 여자는 『매일신보 신춘문에 ‘꿈트’부문 당선작. 정비석, 「여자」, 『매일신보』, 1933.5.12. 이 글에서 작품 인용 시 원문을 훼손하지 않는 한, 한자의 한글 표기와 띄어쓰기를 했다. 또한 강조할 때는 진한 글씨로 표시하고, 소설의 서지를 각주로 밝힌 후에는 소설의 쪽수나 일자만을 괄호로 본문에 표기한다.

13) 정비석, 소설의 본질, 『소설작법』, 신대한도서주식회사, 1946, 38쪽.

14) 정비석은 해방 이후 초기소설을 개작이나 윤문을 한 후 출간했다. 이 글은 식민지 시기에 출간한 판본을 텍스트로 삼았다.

2. 회귀점으로서의 고향과 본능적 주체

정비석은 좌익계열 신문(나프)을 통해 문학계에 입문했지만 “계급에 의존한 문학도 역시” “몰락붕괴에 찌러지는 것이 역사적 사실”¹⁵⁾이라며 카프식의 계급문학을 비판한다. 즉 특정한 계급의 문학 내지 특정한 사상과 신념의 표현이라는 계몽주의에 대한 반발심을 보인다. 도리어 목적지향적인 창작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이-지-고-잉(easy going)한 창작태도”이며 “퇴색된 표현술과 상실된 예술성”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한다.¹⁶⁾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극히 사적인 영역인 애욕의 세계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원의 과제”¹⁷⁾로 삼고, 새로운 표현술로 그것을 묘사하려고 한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성황당」¹⁸⁾인데, 반문화적이고 반계몽적인 삶을 그려내고 있다. 그 스스로도 “악마의 협력”을 받은 작품이라고 할 정도로, 원초적인 생활 감각과 관능미를 보여준다.¹⁹⁾

「성황당」의 순이와 현보는 몇 개의 고개를 넘어야 인가가 나올 만큼 깊은 산골인 천마령에서 숲쟁이로 살아간다. 이 천마령은 이효석의 산과 「들」처럼 완전히 근대적 공간과 완전히 분리된 원초적인 욕망만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문명과 그것에 대한 욕망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천마령에서 태어나 자란 순이에게 언덕 너머의 공간, 즉 물질문명이나 근대적 제도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은 ‘붉은 고사대기 한감과 흰 고무신 한 켤레’의 욕망으로 상징화된다. 성황님이 계신 천마령은 고향상실 이전의 유기적 공간으로 인간과 자연이 자신들의 고유한 존재를 발현하면서도 서로 간의 조화와 애정이 지배하는 고향의 세계이다. 순이는 현보가 숲을 팔아 고무신을 사오자 “이런 모든 것이 성황님의 은덕”(1.15)이라고 여긴다. 그들에게 천마령이나 그곳을 지키는 성황님은 주객 분리의전의 유기적인 세계이다. 현보에게 천

15) 정비석, 공개장-<조선의 문학을 구하라>의 필자에게, 『조선문학』, 1933.1, 90쪽.

16) 정비석, 퇴색된 표현기술과 상실된 예술성, 『조선일보』, 1937.11.3.

17) 정비석, 연애소설, 일반 오해 일소하자, 『조선일보』, 1937.9.12.

18) 성황당은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정비석, 성황당 (전 11회), 『조선일보』, 1937.1, 14-26쪽.

19) 정비석, 유진오론, 『풍림』, 1937.4, 19쪽.

마령과 “순이만이 온 천하의 모든 것이”(1.16)며, 현보와 “순이도, 자연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안”(1.16)은 것이다.

이에 비해 고개 너머의 세계는 인간의 욕망을 확장하기 위해 자연을 수량화하여 지배하여 대지가 파괴되고 신들이 사라진 근대적 공간이다. 이 고향의 공간에 근대적 힘이 투입해오며 이 두 공간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형성된다. 산림감시원 긴상은 법률이라는 근대적 제도를 이용해 현보를 천마령에서 떼어내어 제도의 공간(감옥) 속에 가둬 버리고 순이를 강제로 소유하려 한다. 이 위기 상황을 광산에서 일하는 칠성의 도움으로 극복하지만 현보가 돌아올 날이 멀었다는 절망감과 긴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칠성을 따라 근대적 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

천마령 고개를 다 넘고 **들길**로 들자부터 순이의 마음은 점점 불안스러워졌다.
(중략 인용자)

가는 곳이 아모리 조타 해도 산이 업고 나무가 업으면 그 뻘뻘한데서 어떻게 살까? 더구나 공연히 사람만 만히 모여서 복잡복잡하다는 곳에 가서

사람만 만흔 곳에 가서 지금처럼 고향 저고리에 고향 치마를 입고 마음대로 주저안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까?(1.26)

그러나 “들길”을 보는 순간, 순이는 들판이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인위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깨닫는다. 불안감은 “사람만 만히 모여서 복잡”거리는 도시에 대한 거부로, 다시 산과 현보에 대한 그리움으로 전화된다. 그래서 칠성이 준 ‘분홍 향나 적삼과 수박색 목메린스 치마’를 벗어놓고 성황님에 대한 믿음으로 접동새 울리는 산 속으로 되돌아온다. 거짓말처럼 현보 역시 돌아와 있었다. 이처럼 천마령으로의 회귀는 근원적 생명과의 합일의 과정이며 소외로부터 탈주하는 행위이다.

천마령에서 현보나 순이는 자연의 세계와 서로 소통하고 서로 조화롭게 공존한다. 그래서 긴상이 현보와 순이 부부를 천마령에서 강제적으로 분리시키려는 의도를 감지하는 듯, “비는 체급으로 비듯 내리 쏘았다.”(1.16) 또한 칠성의 선물에 기뻐하는 순이와 달리 “산 비달기가 또 올었다.”(1.24) 그녀가 다시 천마령으로 되돌아오자 “접동새우는 소리가 들”(1.26)리듯이,

마치 자연의 세계가 비가시적인 성황님과 소통하는 매개체로 현현하고, 순이는 자연과 성황님의 품속에서 그 일부로 존재함을 인지한다. 이 세계에서 성과 관능은 본능적인 자연스런 것이다. 「성황당」에서 나타나는 관능미는 일부 비평가에 의해 “악마의 종자” 내지 “애욕경”으로 비판 받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생의 일부라는 의미가 자연과 동화된 순이의 목욕장면에서 드러난다.²⁰⁾

순이는 나무를 듬북 집히고 나서는 저고리를 손에 든 채 개울가로 왔다. 개울로 오자 그는 그는 치마와 베비자마저 훨훨 버서 돌 우에 걸쳐 노코 덩방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산골물은 옥구슬처럼 맑고 어름처럼 차가웠다.

순이는 젖통까지 물 속에 잠겨서, 두 손에 물을 퍼서 세수를 하고나서는, 어깨와 목덜미에 물을 끼얹고 그리고는 앞가슴을 씻었다. 한참 씻고나니 몸은 날듯이 가벼워졌다.(1.19)

천마령에서 목욕하는 순이의 묘사와 현보와 순이의 정사 장면은 도시적 타락과는 거리가 먼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원초적 생활방식이나 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²¹⁾ 자연을 인간의 지배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20) 백철은 성황당의 세계를 “자연에 대한 정서에 깨끗히 양도한 순간의 표현이다. 그 산림간의 원초적인 정적 가운데서 사물을 움직이는 법칙을 잊은 것”과 유사하다고 평하고 있다. 백철, 「신인탐구론 : 창작비평」, 『백광』 3·4월호, 1937.4, 125쪽.

21) 『성황당』의 관능적 묘사는 비평가 사이에서 논란거리였다. 김남천은 우심한 정신상태를 근본적으로 파헤쳐 보거나, 본질적인 여러 가지 시대적 산물 속에서 자신을 검토시키자는 근기있는 노력은 있지 않“다고, 조연현은 ”필연적인 이유도 없이 펍 부자연스럽게 산림간수 긴상 앞에 그의 알몸둥이를 보이게 하“였다고 비판한다. 또한 홍효민은 ”남녀가 정사로 인하여 사회의 질서가 문란되고, 유처자가 처녀를 유혹하는 것이 평연한 행위같이 되면 이 사회, 이 민족은 벌써 부패할 때로 부패된 것이요, 그 결과는 놀라운 일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이 현실인식과 서사적 부조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비판한 반면에, 백철은 관능적 묘사가 자연스러운 행위로 묘사되고 있지만, ”한 알의 악마의 종자가 싹트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정비석은 “성적 묘사를 노골적으로 하였느냐 하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학이냐 문학이 아니냐 하는 근본적인 점에 있는 것”이라고 대응한다. 김남천, 신진소설가의 작품세계, 『인문평론』, 1940.2, 63쪽; 조연현, 애욕의 문학, 『백민』, 1948. 10, 158쪽; 홍효민, 애욕소설의 윤리, 『백민』, 6권 3호, 1950. 5, 149쪽; 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83, 534쪽; 정비석, 『장편소설과 성문제』, 『문학』 22집, 1950.5, 153쪽.

인간조차 자연의 일부분으로 수용하는 동양정신과 관능도 생의 원천이자 자연적인 것이라는 자연 법칙이 조화롭게 해후한다. “인간으로서의 참된 행복은 자기도 자연의 일부분임을 겸허하게 시인하고, 그러한 인식 속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²²⁾ 것이라는 작가의식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성황님’이 지배하는 천마령은 원초적 힘이 지배하는 공간이라는 의미 체계로 현현되면서, 생활 규범과 조화롭게 공존한다. 동양적인 윤리가 원초성을 유지하는 생활 규범이 되고, 성황님이라는 샤머니즘을 숙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천마령은 동양적 공간이자 생명의 공간으로 지속적인 힘을 갖는다. 순이와 현보가 근대적인 제도에 의해 잠시 천마령을 떠나지만 다시 동일공간으로 회귀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성은 관능적이지만, 그 관능조차 건강한 것이고 삶의 원천으로 그려진다. 자연적이고 원초적 관능미를 지닌 순이는 문명의 세계로 나가지 않고 현보를 믿고 기다림으로써, 동양적인 순종의 윤리와 부덕의 가치체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인간이 성황당이 지닌 힘의 논리를 거부하는 순간, “불안”에 휩싸인다. 「성황당」에서 천마령의 자연은 “복작복작한” 근대적 제도와 문명을 타락한 것으로 거부하고 그 세계를 겨우 지켜내지만, 근대적 힘은 점차 이들이 살고 있는 자연의 세계를 끊임없이 지배하여 고향의 공간을 해체해 나간다. 그러면서 문명의 지배력이 농촌 깊숙히 파고들고, 자의나 타의에 의해 고향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고향 상실자들은 예스러운 안정된 삶의 세계, 추억의 장소, 순수한 삶의 세계, 자연에 안겨 있는 아늑한 곳으로 고향을 기억하기 시작한다.²³⁾ 「해춘부」²⁴⁾의 고향은 이미 자연적 지배력으로 무장한 문명의 힘에 의해 도시의 주변부로 파편화된 곳으로 전락하여 아늑한 곳이 아니라 ‘생지옥과 같은 집’으로 그려진다. 주인공 옥희는 「성황당」의 순이처럼 산에서 위안을 삼으면서도 순이와 달리 문명세계로 기표화된 서울로 가고 싶은 욕망을 가진 처녀이다. 도시 생활을 즐기다 내려온 여주는 “이런 촌구석에서 참고 견대는!”⁽⁹⁷⁾ 옥희를 한심스러워하고, 옥희는 그런 여주를 만나면서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매개된 욕망이

22) 정비석, 서문, 『성황당』, 금릉도서주식회사, 1945.

23) 전광식, 「고향」, 문학과지성사, 1999, 25-26쪽.

24) 정비석, 해춘부, 『여성』, 1937.5.

발생한다.

여주는 백화점 여점원, 미쓰길, 타잎의 라이터, 까소링걸, 여자급사 등 제가 아는 한껏 모든 것을 옥희에게 일러 바쳤다. 옥희는 드르면 드를수록, 아직껏 아직껏 못하던 새 세상을 발견하게 되어 한껏 놀라고 한껏 선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97)

여주와 만나는 사이에, 옥희는 저도 모르게 “남쪽하늘 저-용골산 넘어 멀고먼-곳”에 있는 서울을 “불안과 동경”(97)으로 그려보면서, “서울에 한번 가 보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97)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옥희가 서울로 가고 열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봄별은 결핵균처럼 여주와 옥희의 오장을 파고 드렸다.”(97) 결핵균은 고향으로부터 이탈하고 유리될 옥희의 병적인 황폐함과 불건강성을 상징함에도 불구하고, 옥희는 서울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혀 남자동무와 창경원에 놀러가서 “사꾸라 구경도 활동사진 구경도”(99)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으로 도시를 상상할 뿐이다. 옥희가 고향과 자연세계를 떠날 때에도 “산천은 아는가 모르는가 오늘도 봄빛만 지터갈 뿐 꾸준한 침묵을 지키고 있”(98)을 뿐이다. 이 침묵의 소리는 존재자 전체가 소리 없이 말을 걸어오는 “정적의 소리”(das Geläut der Stille)²⁵⁾이지만 자연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무한 욕망에 합류하는 옥희에게는 들리지 않는다.

고향상실의 황폐함이 죽음과 같은 도시의 삶으로 나타난 소설이 줄곡제²⁶⁾이다. 주인공 언삼은 「해춘부」의 옥희와 달리 농사꾼이었지만 홍수로 인해 농사도 망치고 처마저 죽어 눈을 떴이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신의주로 옮겨와서 자유노동자인 지계군으로 전락”(1.21)한다. 언삼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 정욕이나 식욕마저 충족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린다. 그 와중에 노파의 권유로 “정욕의 주립”(1.24)을 충족하고자 재취를 고민해보지만, 먹을 입만 더 들이는 꼴이 된다고 아들 장손이 반대한다. 재취대신

25) 하이데거는 존재가 말없이 다가와서 우리를 침묵에 빠뜨리고 소리 없이 말을 걸어오는 것을 “정적의 소리”라고 했다. 이것은 현대문명을 우월한 것을 치부하는 현대인들에게 소박한 자연을 망각하면 사멸할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박찬국, 『들길의 사상가 하이데거』, 동녘, 2004, 37-38쪽.

26) 줄곡제는 성황당 보다 한해 전에 『동아일보』 신춘문에 당선작. 정비석, 줄곡제, (전 11회), 『동아일보』, 1936.1.19-2.2.

아내가 죽은 지 100일을 기리기 위해 줄곡제를 준비한다. 줄곡제는 단순히 아내에 대한 추모가 아니라, 충족된 세계로서 고향에 대한 회고이며 고달픈 현실을 달래는 위무였다. 비록 가난했지만 “지난날 동리사람들과 같이 담배도 피우고 옛말도 우습바람에 지지빅거리든 때를 회고”해 보니 그때가 “행복된 시절”(1.21)이었던 것이다.

안해: 생각만 하여도 입에 생침이 즐즐 흘렀다. 죽은 안해와. 몸은 수척하면서 도 젓기슴만은 툭 터질듯이 발달되어 토실토실하든 그 젓무덤!

해별에 타서 적동색이면서도 뺨은 듯이 미끈하든 그 넉적다리! 갈름한 통상의 중앙에 유난히 빛나든 그 눈동자! 바람과 해별에 탄 얼굴이었지만 결코 누구의 안해보다도 못지않은 언삼의 처권이었다.

언삼은 생활의 줄린 속에서도 항상 자유롭고 아름다운 꿈이 잇었으니 그것은 안해에 대한 만족과 안해를 품에 안는 순간이었다.(1.24)

관능적인 미와 정숙한 아내로서의 부덕을 지닌 아내와 살던 그 시절은 그다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자유롭고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제는 과거일 뿐이다. 고향 상실자의 현재는 꿈도 없이 그저 생존에 급급한 처지로 전락한다. 아들 장손은 생계를 위해 위험한 설탕밀수를 하고, 언삼이 줄곡제를 치루기 위해 돈지갑을 훔치면서, 근대적 처벌 즉 “순사, 경찰서, 재판소, 감옥, 이런 것을 질서없이 련상”(2.1)하는 처지에 몰린다. “참말이지 따져버면 죽은 안해보다도 산 세 생명이 더 불쌍하였다.”(2.2) 그에게는 아내와 같이 살던 고향에서의 삶은 충족된 삶이다. 자연에서 벗어난 도시적 공간, 근대적 힘의 공간은 죽음보다 못한 삶만을 줄 뿐인 황폐한 곳이다. 애정의 결합도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인 교환가치로 등장하고 성적 욕망도 풍부한 자기공정의 상호관계가 아니라 성적 주립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축소되어 건강성을 상실한다.

「애증도」²⁷⁾는 작은 포구에서 살고 있는 여성이 도시에서 온 한 남자를 사랑하지만 배신당하고 인생유전을 겪는 이야기이다.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의 고향으로 회귀하려고 소망하지만 끝내 돌아가지 못하는 비극을

27) 「애증도」는 1938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당선작. 정비석, 「애증도」, 『조선일보』, 1938.4.24-5.13.

그리고 있다. 홍매는 8년 전 포구에 놀러왔던 서울의 외과전문학생 최종섭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의 기다리라는 말을 믿었던 순박한 여자였다. 그가 떠난 뒤에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기다리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도시로 떠나온다. “아이를 낳자 여급”으로 다시 “홍매”라는 색주자로 전락했다. 8년 후 우연히 해후한 아이 아버지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남자로, 기다릴 가치가 없는 인물로 드러난다. 홍매가 죽어가는 아이를 붙잡고 평소부터 가고 싶었던 득보의 고향 ‘다슬기’로 가자고 외치지만, 공허한 울림일 뿐이다. 이 소설의 다슬기는 「성황당」의 천마령과 같이 긍정적인 의미 체계와 지속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이자, 작부의 삶을 벗어나 소망스런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관념적으로 이상화된 고향의 공간이다. 이 고향의 공간은 정신이 자기의 삶과 일치하고 감정이 자유롭게 해방되는 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원초적인 힘에 의지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애정의 관계가 관능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고 신적 세계와의 화해나 자신과의 화해가 쉽게 이루어지는 세계이다. 절대적 주관성의 세계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정비석 초기소설에 그려진 고향의 세계는 남녀 간의 믿음과 의지가 애정의 방식이자 윤리가 되고, 관능과 자연의 원초적 욕구가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그러나 이 세계에서의 관능은 “자아보존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이용된다. 그러한 것들 속에 내재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리하여 그 개체들은 생명에 매여 있고 생명 또한 그것들에 매여 있”²⁸⁾는, 원초적 욕구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의 공간이다. 헤겔식으로 바꿔 말하면 “자신의 고유한 절대적 활동을 통해서 자기 고유한 본질을 대자화시키”²⁹⁾는 의식과 세계를 향유하는 실존에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는 인물들이다. 이들에게 고향의 공간과 근대적 문명의 두 세계는 분리된 채 상호 배타적으로 존재한다. 인간이 복수의 타인과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근원적 사실이라면 타인과의 교통 또한 숙명적이고 교환이 복잡해지고 제도화되는 것은

28)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두행숙 역, 『헤겔미학 1-미의 세계 속으로』, 나남출판, 1996, 209쪽.

29) Metscher, Thomas & Szondi, Peter, 여균동·윤미애 역, 『헤겔 미학입문』, 종로서적, 1983, 199쪽.

불가피한 일이다.³⁰⁾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타자와의 본연의 관계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한 불가피하게 교환과 제도는 복잡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정비석 소설에 나타난 고향 세계는 세계를 인식하는 존재로서의 실존이 아니라 원초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즉자적 공간이며 상상적 공간에 불과한 것이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관능 역시 무한의 세계를 유한한 나와 사건으로 연결하는 주체적 힘이 아니라 신앙의 절대적 대상이나 숭고한 자연적 질서의 한 부분으로 드러날 뿐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능적 주체는 반근대적 주체라 할 수 있다.

3. 열정적 사랑의 추구와 가족 윤리의 경계에 선 낭만적 주체

근대적 제도와 규범 속에서 근대적 개인이 탄생한다. 그들은 세계와 대자적으로 존재하는 주체가 되고 자신의 신체와, 정신, 이성, 감정의 독립성을 추구한다. 또한 욕망과 감정의 주체로서 외부의 제도나 윤리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기도 하고, 사적 영역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한다. 자기 자신 이외의 어떤 것에도 구속받거나 복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독립적 개인으로 존재하려할 때, 그 주체는 비사회적 존재이자 낭만적 주체가 된다.³¹⁾ 「애정」, 「동정」, 「상처기」, 「자매」, 「비밀」, 「금단의 유역」, 「청춘계도」 등은 근대적 공간을 배경으로 전통적인 윤리나 규범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한 낭만적 주체를 그리고 있다. 이들은 “무기력한 조화와 평화 대신” “생의 약동, 유출, 개별성”³²⁾을 강조하고 서로 다른 타자에 대한 열정적 사랑을 추구한다. 열정적 사랑을 인간의 본원적 욕망이자 자기 실현의 계기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관능은 극치의 대상이자 자기를 추구하는 한 요소가 된다.³³⁾

30) 今村仁司, 이성혁·이혜진 역, 『화폐 인문학』, 자음과모음, 2010, 60쪽.

31) 진영복, 1920년대 대중적 글쓰기와 근대적 주체의 자유상, 『현대문학의 연구』 35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08, 417쪽.

32) 낭만주의자들은 계몽주의의 무기력한 조화에 반발하여, 힘의 자유로운 실현이 인간의 행복을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Berlin, Isaiah, 강유원·나현영 역, 『낭만주의의 뿌리』, 이제이북스, 2005, 73쪽.

예컨대 「애정」³⁴⁾에서는 “사랑은 자유”이고 “진실”이며, “그것을 극대화시킨다.”라고 간주된다.(189) 따라서 주인공 K는 사랑은 절대적이고 가장 신성한 것이라고 자기 사랑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한 생명의 진실을 억누를 무엇이 세상에 존재”(194)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움직이지 못할-움직이지 못할 것이 대체 어데 있으랴. 한 사내와 한 여자가 어떠한 동기로든지 서로 맞부끼면 하면 애정이야 있건 없건 죽기까지 더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거룩한 **도덕의 신조**가 아니야. 과연 그것은 옳은 일일까?

사랑과 리해 없는 가정은 무덤과 같다면 그래도 **도덕이라는 사회적 제약** 때문에 살아서 무덤을 피야 옳을까?

아니다! 도덕은 더 잘살기 위해서 사람이 비저놓은 한 개 규약이다. 그러나 일단 맺어진 규약은 이외에도 사람 자신을 속박하는 힘이 이렇게도 굳센가 생각하자 K는 **봉건도덕에 대한 반항심**이 밀물처럼 치밀었다.(199)

그런데 K와 은주가 각자 다른 배우자와 혼인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복잡한 갈등이 부각된다. K와 은주는 자신들의 생을 약동시키고 자유와 해방감을 주는 열정적 사랑을 속박하는 것이 도덕이라는 사회적 제약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애정은 보편타당성에 준거하여 세워진 것으로,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는 힘인 도덕에 대한 “반항심”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은주는 남편 상호가 받을 고통과 “상호씨의 순정을 가장 굳게 믿”(198)기에, K 역시 “은주를 잃어버린 상호와 자기를 잃어버린 안해의 얼굴을 그러보고 다시 우울해”(191)지며 결단을 못 내린다. 이들의 고민은 사랑하는 당사자간에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혼인관계로 맺어진 그들의 배우자가 받을 고통의 상상적 공감과 연민 때문에 심화된다.³⁵⁾ 낭만적

33) 예컨대 낭만주의자에게는 관능도 미적 추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목의 아름다움이나 둔부의 곡선은 무역사적이고 자연적인 사실로서 성적 욕망을 촉발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험을 함축하고 있는 이미지들”로 작동된다. Horkheimer, Max & Adorno, Theodor, 김유동 외 역, 『계몽의 변증법』, 문예출판사, 1995, 155쪽.

34) 정비석, 「애정」, 『사해공론』, 1936.12.

35) Lovejoy에 의하면, 낭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내부와 동시에 외부의 중심도 이해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과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Lovejoy, A. O., “Chap X”, *The Great Chain of Being*, Oxford Univ. Press, 1964 최상규 편, 『낭만주의의 총만의 원리』, 『낭만주의 문학의 재조명』, 예림기획, 1998, 172쪽.

주체들이 가진 일반적 속성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다. 결국 타인의 고통에 대한 상상적 공감과 사회적 도덕을 건디지 못하고, “이지(理智)가 배송한 은주는 자기의 몸을 갈면서라도 사랑을 갈어죽”(200)이고, K 역시 “천사처럼 수직한 안해와 아기들을 미워하는 자기의 죄를 몇번이고 뉘우”(203)치게 된다. “가정이 허울 좋게 지탱”(205)하겠지만, “두 사람의 애정을 목살”(205)하는 것이 서로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여기면서 소설은 끝난다. 그러면서도 “K는 자기와 은주 사이에는 어떤 악마의 힘이 있어 즐기차게 그러댕기는 것을 새삼스러히 느”(203)끼는 낭만적 주체의 열정을 버리지 못한다. 이는 「연애소설 일반 오해를 일소하자」³⁶⁾에서 “사람은 일생을 통하여 연애를 하는 것이고 또 해야” 하는데, “엄격한 윤리 때문에 바친 무수한 희생을 업세기 위하여 서도 거기 반기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낭만적 주체의 저항은 가족에 대한 현실적 책임과 도덕률에 의해 봉합되고 만다.

「동경」³⁷⁾은 봉건적 윤리나 질서를 거부하며 생명의 활력을 주는 힘으로 열정적 사랑을 그리고 있다. 2년 전 순희는 택규를 두고 부모의 강제에 의해 의학과 결혼한다. 순희와 이별한 후, 택규는 이별의 상처와 순이에 대한 원망으로 술에 의존하다가 폐결핵을 앓게 된다. 그런데 2년 만에 순희가 “인형의 집”의 봉건적 질서 밖으로 과감하게 뛰쳐나온다. 반면 택규는 다시 나타난 그녀를 그 질서 안으로 보내려는 마음과 순희의 “앵도알같이 붉든 그 입술”(338)의 관능적 매력 사이에 갈등한다. 순희의 “순교자적 비장한 각오에서 찰란한 이롭다움을 발견했음으로 잘못 덤비다간 또 사랑에 빠지지 않을까 그걸 경계하는 때문이었다.”(240) 그러나 순희의 애정을 확인하는 순간 “택규에게 한 덩리의 생명소로 보였다.”(344) 열정적 사랑이 “죄라기보다 운명”(240)이기에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반면에 자매³⁸⁾에서는 윤리적 책임감 때문에 열정적 사랑을 포기하기도 한다. 흥채는 옥순과 옥경 자매와 사귀다. 이들은 본처와 첩의 딸로 전문학교 교육까지 받은

36) 정비석, 연애소설 일반 오해를 일소하자, 『조선일보』, 1937.9.12.

37) 정비석, 동경, 『조광』, 1938.6.

38) 정비석, 자매, 『매일신보』, 1939.2.15.

신여성들이지만, 전혀 다른 윤리감각을 지닌 주체들이다. 즉 옥경은 외모도 우월하고 성격도 팔팔해한데다가, 병원장의 비서란 직업을 갖고 주체적으로 남성을 만나 사랑을 나누는 새 시대의 윤리 감각을 지녔다. 반면에 옥순은 성적은 우수했으나 “부친의 명예를 위하여” 직업보다는 결혼하여 남편을 내조할 준비를 하는 구 시대의 윤리 감각의 소유자이다. 옥순은 본처의 딸이라는 우월감이 남자 문제에서 만큼은 늘 열등감에 시달린다. 따라서 옥경에게 홍재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질투에, 홍재 앞에서 옥경의 취향을 멸시하고 홍재를 유인하여 관계를 맺는다. 이런 옥순의 모습에서 홍재는 “비속한 교양이거나 그러한 걸로 죄업을 사람을 축박어줌으로 터무니 없는 우월감을 발휘하려는 옥순”에게서 도리어 “암전 속에 불가사리가튼 야차가 숨어 있는 것갓티” 느끼고 “환멸”감을 갖는다. 이런 환멸감은 “시언시언한 태도”와 직분 윤리와 결합된 시민적 교양을 갖춘 옥경에 대한 끝림으로 이어져, 나체화를 그린다는 핑계로 옥경과의 만남을 지속한다.

「그럼 내겐 풍기도 도덕도 질서도 업단 말이나」

「진 그런 걸 중하겐 보지 안어요! 지금 새삼스럽게 **낡은 질서**를 직힐 필요가 업스니까요 (2.15)

풍기, 도덕, 질서라는 낡은 질서로 옥경을 다그치는 옥순을 보면서도, 홍재는 애정/윤리, 감성/이성이 대립 속에서 “낡은 질서”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순간에 또 한번 옥순과의 그날밤일에 무거운 짐을 깨달”고 그것이 속박하는 윤리에 따라 애정 없는 결혼을 결심한다. 반면 옥경은 사랑을 찾아서 거리로 자유롭게 “활개치며 거러” 나간다.³⁹⁾ 즉 옥순은 오히려 윤리나 도덕을 낡은 질서로 규정하고 책임감으로 포장된 결혼이라는 제도의 구속 대신, 생명의 근원이자 새로운 질서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힘으로 확장된

39) 금단의 유역 에서는 봉건적 윤리 감각과 관능미를 결합시킨다. 즉 금단의 유역의 순경은 자매의 옥순과 달리 고매한 인격을 지닌 여성이자, “금방 피려는 꽃봉오리처럼 보동보동 부르튼 두 개의 젓무덤이며, 은실같은 곡선을 그리면서 뽑은 듯이 미끈하게 내리빠든 허리며, 능동적인 선과 선을 두려시 그리”에서 “황홀한 아름다움”을 지닌 관능적 여성으로 그려진다. 한편 옥경은 명랑하고 적극적이기만 한데 여성 영욕으로 묘사된다. 정비석, 금단의 유역, 『조광』, 1939.7-12.

열정적 사랑을 추구한다.

이처럼 정비석 소설에서 열정적 사랑은 도시와 근대적 제도를 향유하는 행위이고 근대적 개인의 사적 욕망의 충족이자 자기실현의 행위이다. 거기에 전근대적인 질서에 대한 거부라는 사회적 의미가 덧붙여진다. 그러나 이 낭만적 주체는 여성을 구여성으로 신여성으로 구획하고, 여성의 정조 장치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젠더적 위치를 위계화한다. 정비석이 『도회의 여성』에서 “인테리 여성들까지”⁴⁰⁾ 거리의 여자들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한 바 있듯이,⁴¹⁾ 봉건적 윤리와 애정사이의 갈등 사이에 당대 인텔리 여성들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과 정조 관념을 투입시키고 있다.

『상처기』⁴²⁾의 주인공 역시 열정적 사랑을 꿈꾸는 낭만주의자이다. 그는 무식하고 자식에게 가정교육도 시키지 못하지만 “황소와 같이 튼튼한”(188) 체질을 타고난 아내보다, 그의 “로맨틱한 성질은 소와 같이 충직한 것보다 비답이와 같이 명랑하고 귀여운 것을 요구”(190)한다. 그러므로 아내의 위독 소식에 “한편은 반카우면서도” “죄를 지은 것 같아서 맘속에 불안을 느”(188)낀다. 아내의 죽음 순간에 “몸지어 누어서도 내 점심 걱정이니 자아를 내던져 남에게 봉사하는 맘”을 발견하고, 비로소 아내의 “진실한 사랑을 느”(192)끼고 그런 아내를 “다시 없는 현처”(190)라고 평가한다. 아내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만, 이 사랑은 삶이나 애정을 같이 할 존재로 아내를 재인식한 것보다는 더 이상 자신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죽는 자에 대한 연민의 측면이 강하다. 이상 속에서 관념화된 인물에 대한 칭송은 열정적 사랑에 대한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봉건적 윤리 감각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열정적 사랑을 비밀로 간직하기도 한다. 『비밀』⁴³⁾에서도 비밀로서라도 열정적 사랑을 간직할 수 있다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비밀조차 윤리적 잣대로 거부하는 “상식인을 경멸”(261)하고, 자유와 생명을 느끼기 위한 열정적 사랑의 낭만성은 비밀스럽게 유지하려 한

40) 정비석, 도회의 여성, 『매일신보』, 1939.10.2.

41) 『청춘계도』은 비싼 선물(악어핸드백)을 준 남자에게 굴종하는 천박한 인텔리 여성을 다루고 있다. 정비석, 『청춘계도』, 『여성』, 1940.5.

42) 정비석, 상처기, 『신가정』, 1936.1.

43) 정비석, 비밀, 『문장』, 1939.7.

다. 가족 윤리를 흔들면서 “사색적 고민과 창작적 정열과 예술가적 양심이 한데 뭉키여 싸우는 유희의 절체절명의 찰나”⁴⁴⁾를 그리지만, 현실의 시선과 애정의 윤리, 도덕적 책임과의 경계에서 절묘한 긴장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에 반해 「잡어」와 「나락」은 여급의 삶을 관능적으로 보여주지만, 열정적 사랑과는 분리시키고 있다. 이들의 관능적 육체는 돈을 버는 수단이고 남성의 성적 대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잡어」⁴⁵⁾에서 주인공 사유리는 문학가인 병보와 사랑하는 사이지만, 결혼한 아내가 있고 대학 강사이기도 한 병보와의 관계는 사회적으로도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 사유리는 “여급의 운명이란 원체 이렇게 서글프고 애달프고 우울하고 그런것이라고”(163) 알고 있기 때문에, 병보의 애정을 느낄 때 “현혹할 행복에 서름이 앞장”(173)서는 감정에 휩싸인다.

태웅의 세계 병보의 세계에서 출발하여 사유리, 히도미, 쯔바끼의 세계를 거쳐서 비로소 도망할 수 있는, 추악조차가 꽃포기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그것은 인간 정신이 도망 할 수 있는 최고의 세계, 극치의 세계가 아닐까.(190)

사유리는 태웅의 세계는 관능만 존재하는 세계이고, 병보의 세계는 인간 정신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열정적 사랑의 세계로 인식한다. 결국은 여급의 열정적 사랑이 결혼 제도 속으로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없음을 자각하고, 태웅과 같이 관능의 세계, “미지의 나라”(191)로 떠나버린다. 사유리는 여급이라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나락」⁴⁶⁾의 란향과 마찬가지로 열정적 사랑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포기한 것이다. 정비석 소설에서 낭만적 주체는 언제나 새로운 애정과 가족의 경계에 서 있는 남성이다. 반면에 여성은 관능과 애정의 대상으로 타자화되는 젠더 정치학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관능의 대상인 여급은 정비석 소설에서는 늘 가족 구성의 경계 밖에 있게 된다. 「잡어」의 병보 역시 그 경계에서 갈등하지만, 사유리나 란향은 가족의 타자로 경계 밖으로 내몰린다. 윤리와 애정 사이의 경계자를 자처하

44) 정비석, 퇴색된 표현기술과 상실된 예술성, 『조선일보』, 1937.11.3.

45) 정비석, 잡어, 『인문평론』, 1939.12.

46) 정비석, 나락, 『사해공론』, 1937.10.

는 낭만적 주체는 남성 주체로 한정되고, 늘 외적 세계와 소통하려고 하면서도 그 세계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유부단하다. 사랑과 성을 향한 감정의 순도가 높고 진실하다면 그것을 과단성 있게 추구해야 한다는 자아와 그로 인해 상처 받을 타자를 생각하는 윤리 사이에서 갈등한다. 이러한 갈등은 막연한 환상, 두려움, 불안을 동반하게 되고, 강력한 그 무엇에 의해 갈등이 조정되기를 소망한다.⁴⁷⁾ 이 갈등 상황에서 전체성이라는 새로운 조정자로서 국가가 호명된다.

4. 애정의 윤리와 유기적으로 조화되는 국가라는 대주체

자아와 세계의 이차적 관계인 낭만적 주체를 추구하던 정비석에서 ‘전체성’이라는 개념이 투입하기 시작하면서 애정의 윤리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변한다. 그 전체성은 반근대적인 동양적 지역성(Locality)과 반자본주의적인 도의의 세계가 새로운 국가 건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언제나 갈등적 상황에서 딜레마인 채 중단되곤 했던 단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애정의 윤리의 향방을 새롭게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 말기, 정비석은 집요하게 파고든 애정 결합과 가족 구성에서의 진실한 관계는 욕구와 필요, 충동과 도덕을 희생해야 하는 불균형적이고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구체적 인격’을 추구한다. 즉 상호의존성을 확인하고 실현하는 새로운 환경이나 의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헤겔에 따르면, 개인은 결혼을 통해 자신이 더 이상 외롭게 고립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좀 더 큰 실체의 자의식적인 구성원이 되었음을 인식하게 된다. 부부로 엮인 남녀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 자신의 진정한 자아실현이 상대방에 대한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태도와 자발적인 자기 절제에 있음을 반성하고 상호의존성을 실현함으로써 개인은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한다. 이때 인간의 본성에서 발생하는 모순으로 생기는 “대립의 양태에 대해 철학의 엄격한 보편성에 따라 사유하고 또 보편적인 방식으로 이를 지양하고자 나아간다.”⁴⁸⁾

47) Berlin, Isaiah, 강유원·나현영 역, 『낭만주의의 뿌리』, 이제이북스, 2005, 179쪽.

정비석은 「성황당」 등에서 고향으로의 회귀를 통해 애정과 관능성의 조화를 모색하였으나, 「애정」 등에서는 애정과 관능성을 극단으로까지 밀고 나가는 극단적인 자유주의자의 가치를 탐색했었다. 그런데 다시 애정과 관능성을 공동체적 전체성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인다. 정비석이 애정과 윤리의 향방을 모색하는 과정은 헤겔의 변증법적 논리를 연상하게 한다. 주체가 원시적 세계와의 합일에서 개인의 극단의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으로서의 변화, 다시 전체성과의 관련성 속에서 참다운 의미를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시대와 사회, 국가라는 전체성을 의식하며 여기에 낭만적 자아를 결부하여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사상과 의식, 가치를 추구한다. 그러나 헤겔과 달리, 정비석은 주체가 대주체로 회수되어 버리는 몰주체의 세계로 나아간다.

자유주의적 사유방법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내가 강조하려는 것은 **아름다운 희생정신**이다. 개인으로서 희생정신이 결여된 자는 위대한 정신으로 그것으로의 완수를 수행하려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멸사봉공의 정신이란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큰 충실한 개체의 총화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개인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궁극에는 전체로 통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⁴⁹⁾

정비석이 “자유주의적 사유방법”을 거부하고 모색한 전체성은 동양적 도의와 지역성, 그리고 자본주의를 수정한 국가사회주의적 모습을 한 공동체였다. 정비석은 “유해한 편견과 싸우고, 편협한 시각을 버리고, 국민의 정신을 계몽하고, 그 취미를 정화하여 마음가짐과 사유를 고상하게 하는”⁵⁰⁾ 국민문학을 지향점으로 두었고, 그런 문학의 수행하는 것이 문학자에게 부여된 최고의 애국적 행위라고 간주한다. 그러므로 일제 말기 정비석 소설에 나타난 애정과 가정의 윤리가 개인 간의 범주를 초월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낭만적 주체는 국가라는 대주체와 결합하면서, 과학기술

48)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두행숙 역, 『헤겔미학 1-미의 세계 속으로』, 나남출판, 1996, 154쪽.

49) 정비석, 特輯: 新しい國民文藝の道作家の立場から, 『국민문학』, 1942.2. 60쪽.

50) 정비석, 特輯: 新しい國民文藝の道作家の立場から, 『국민문학』, 1942.2. 57쪽.

의 합리성에 열정적으로 몰입해 간다. 반면에 고향의 세계로의 회귀 욕망을 지닌 주체들은 반서구적 입장에서 애정의 윤리를 조망하는 가운데 전쟁에 쉽게 동원될 수 있는 향토적인 것, 동양적 도의의 세계로 안착한다.

4-1. 기술 문명의 도구적 합리성의 승리와 사랑의 주체

근대적 기술문명은 자연과 세계를 지배 대상으로 수량화하여 정복하지만 역설적으로 지배자인 인간 자신마저도 지배 대상으로 전환시킨다. 왜소한 인간은 확장 욕망의 대주체이자 재배의 연장적 사물의 대주체인 국가의 힘에 편승하여 자기를 확인하려고 한다. 「제3의 우정」⁵¹⁾은 국가라는 대주체의 확장 욕망에 편승하려는 열정이 확연히 드러난 작품이다. 13년 전 오창억은 월사금이 없어 ‘나’의 도움을 받았으나 돈을 훔친 죄로 퇴학을 당한다. 그후 일본 유학을 하게되고 검사가 되어 나타난다. 우연히 기생집에서 만난 오창억은 나를 신진문사로 지칭하면서 나의 보잘 것 없는 원고료 수입을 묻는다. 오창억은 돈/정욕을, 나는 정신/진실한 애정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대답한다.

「애정이 정욕보다 고상하단 말인가,」

「정신의 존중심을 알란 말이네,」

「난 문학간 아니니까 단순한 현실주의자인 내겐 **남녀관계란 단순한 홀몬작용**으로 밖엔 안 보이데그려! (141)

오창억은 “홀몬작용”이라는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애정과 관능을 탐미의 대상으로만 간주한다. 또한 ‘양심’과 교화로서 법의 집행을 요구하는 나와 달리, ‘처벌’로서의 법의 집행을 주장하는 등 인간의 이기적 속성에 근거한 현실주의자적인 면모를 보인다. 이런 오창억의 태도에 경멸감을 보이지 않지만, 기생 진홍이 어려운 처지에 처해도 도울 수 없는 현실에서 무력을 실감하고 처절한 패배를 맞본다. 나를 정신적으로 존경했던 진홍은 무기력하게 관조하는 나에게 환멸을 느끼고, 범죄 혐의를 받던 노부호 안승호와 함

51) 정비석, 제3의 우정, 『조광』, 1940.5.

께 자취를 감춰버린다. 가치의 기준을 돈에다 두는 오군보다 정신에 두는 진홍이 훨씬 승해 보인다는 나의 판단의 마지막 보루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자넨 대문호가 되기엔 시야가 너무 좁아 있으나 마나한 문사루 일생을 공상맞게 지내느니 차라리 돈을 모으란 말이네. 발자크의 ‘웨지니 그란테’를 나는 가장 존경하네. 세상은 그를 수전노라 비슷지만 **국가적 견지루** 보드래두 그를 자네 또래 천만명보다 차라리 ‘웨지니 그란테’ 한 사람이 필요하거든. 자네두 돈 모을 공 불해서 요새말루 나리깡보국(誠金保國)을 하게 충고하네.(148)

결국 나는 오창역의 논리에 순응하고 만다. 오군은 “나리깡보국”을 위해 신경으로 전근 신청을 했다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법률이나 국가의 부강에 도움을 주는 경제적 활동이 정신적 창조물보다 훨씬 더 긴요하다며 나에게도 신경행을 권유한다. 오군의 권유에 나는 모욕을 느끼기는커녕 부탁한다고 말한다.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은 기술적 합리성을 최고에 가치에 올려놓음과 동시에 금력의 위력을 더욱 빛나게 하는 상황에서 문학가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없음을 수리한 셈이다.

왜냐면 **순환법칙**으로 보아 오군이 언젠든 한번은 나보다 뭐시나 우세한 지위에 놓일 것이므로 내가 오군에게 당하는 참패는 말하자면 대인관계가 아니라 한 개의 **운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상기 무의식중에 오군을 동정하는 십 삼 년 전의 심리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랐나 아닐까? 어쨌든 오군의 호담스런 태도를 목격하는 동안에 나는 불쾌가 아니라 차라리 일종의 감격까지 일으키었다.(138)

‘나’가 오창역을 만난 후 오랫동안 살아 왔던 신념을 포기하고 현실을 인정한 이유는 개인이 커다란 순환법칙이나 전체의 논리에 속박당할 수밖에 없다는 ‘운명’의 논리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운명의 논리는 화학이나 물리학, 수학에서 원리적으로 최소한 어떤 종류의 궁극적인 답변이 주어지듯이, 혹은 궁극에 가까운 해답이 존재한다는 전체 개념을 믿는 것이고 사회와 세계가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는 합리주의에 대한 믿음인 것이다. 모든 질문들은 진정한 대답을 갖고 있고, 그 답은 원리적으로 발견 가능하

고 그 대답들은 조화로운 단일한 전체 안에 화합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정신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나보다, 이 세계와 인간을 철저히 기술적 합리성으로 환원시키고 있는 오군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오군은 “가령 사고나 아침같은 것두 일종의 노력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되네. 사회란 따윈의 말마따나 생존경쟁의 전장이니까 이기기 위하여서는 수단을 가릴게 아니겠지”(140)라고, 애정이나 사람, 덕과 양심 등의 가치는 철저히 물리적 작용과 수리적 법칙으로 계산되어 파악되는 기술적 합리성으로 파악한다. 문제는 이런 대결 구도에서 나는 “십삼 년이란 세월이 오군의 사상을 이렇게 철저히 만든 것일까?”(140)라며 오군과 현실주의적 힘 앞에 무력하게 투항하고 만다는 사실이다. 전쟁이란 그 명분이 무엇이든 간에 이런 기술적 합리성이 전면적으로 극대화되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이런 패배는 전체 상황의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백철의 사실수리론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사실 수리가 「삼대」⁵²⁾에서는 전쟁에 대한 확신과 판단으로 나타난다. 이 소설의 주인공 형세는 “누구는 30년대와 20년대 사이에 언어가 통치 않는다고 했지만”, 30년대의 언어는 “30년대인 그들 자신에까지 통치 않을 것”(156)이라고 판단한다. 그는 “시금직한 화상들”(151)로 구성된 가족들 과도 소통하지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구한말 병조판서를 지낸 후 벼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아버지, 붉은 사상의 세례자이자 현재는 우울병에 걸려 무기력해진 형, 남편의 외박에도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지만 “부덕(婦德)”으로 명분화 된 “동물적 굴종”(151)의 아내는 모두 서로 소통하지도 않으며 소통하기 위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지도 못하는 인물들이다. 이런 구시대적 질서와 환경 속에서 형세는 새로운 시대의 개벽을 확신한다. 형 경세가 ‘새로운 사실’ 앞에서 자기가 품었던 신념에의 회의와 고민을 거듭하는 인물이라면, 동생 형세는 이런 형을 “농간없는 형을 비웃으면서 새 날을 환영하”(155)면서 형의 세대와 자신을 구별짓는다.

형세는 지금의 시대는 “무질서의 시대가 영웅처럼 나타난”(155) 시대이며, 전쟁에 의해 구시대의 잔재들 즉, “철벽같은 아성도, 정신문화를 자랑하던 사원도, 문명의 힘을 자랑하던 마천루도 새로운 힘 앞에서 오직 한 조각

52) 정비석, 삼대, 『인문평론』, 1940.2.

의 고고학적 창고품으로 변해갈 뿐”이라고 인식한다. 그러므로 전쟁은 낡은 것을 부수는 “오직 파괴의 운동을 찬란하게 계속”(169)하는 힘이라고 인식한다.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에게 형세는 “성자필멸(盛者必滅)의 불교적 관념으로 보나, 극성칙쇠(極盛則衰)한다는 유교적 관념으로 보나, 혹은 형님이 늘 말씀하시는 변증접적 논리로 보드라도 질서의 뒤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무질서의 세계가 온”(157)다고 역설한다. 형세가 보기에 “사회의 운동은 그 자체의 운동논리로써 움직이는 것이요, 움직인다는 것은 힘과 힘의 싸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운동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처럼 초월적인 것이다. “운명이란 말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동의 논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운명’을 고쳐 말하면 변증법의 걸어가는 코스라고해도 좋”(157)은 것이다. 운동=변증법적 코스=운명의 연쇄관계에 의해 형세는 대동아전쟁이 전체적 힘의 논리에 의해 일어나는 필연이라고 파악한다. 전쟁은 운명이 요구한 것이고 필연성이 내재해 있다는 ‘시대적인 운명론’을 도출한다.

이러한 형세의 논리는 반지성론으로 이어간다. “지성이라는 것이 시대적인 운명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용납되지 못했든 것”이므로 지성은 “주어진 운명의 권내에서 그것을 잘 이용해 가는데 절실히 필요”(157)한 것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힘의 논리는 지성을 우연적인 것, 상대적인 것, 상황적인 것으로 약화시키고, 선악이나 가치의 문제는 승리와 패배에 따른 ‘힘의 문제’로 귀결시킨다. 파괴의 힘, 정복의 힘은 세계를 계량적 대상으로밖에 파악하지 않는 과학기술의 합리성과 맞물려 그 힘이 배가된다.

가장 평화스럽게 보이는 도시의 창공에는 돌연 으르렁거리는 폭음과함께 행열도 정연한 열두대의 荒鷲 폭격기가 제비처럼 나타나더니 갑자기 폭 아래로 꺼져 내려오면서 폭탄들을 던진다. 열두대의 비행기에서 빗발같이 떨어지는 폭탄은 쓴 살같은 속력으로 커다란 빌딩에 붓춤기와함께 쿵! 소리를 내며 지붕이 와슬렁 와슬렁 허물어지고 연기가 샅시에 시기에 가득차지고 그리자 한편에서는 화염이 맹렬한 기세로 하늘을 찌를듯이 타오른다. 평화롭던 도시, 문화를 자랑하던 도시는 참으로 놀랄만한 속도로 파멸의 순간을 맞는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거대한 운명의 힘**만 같았다.(159-160)

전쟁이 추구하는 명분은 커녕 인간의 문화나 가치의 세계는 설명되지 않는다. 전쟁 주체에 동일시된 시선은 전쟁의 목표물이 된 문화와 문명, 그리고 사람들은 실존하는 존재자가 아니라 사라져야 하는 그림자, 구시대의 환영이다. 다만 “뉴쓰-영화”로 스크린에 투시된 비실체인 것이다. 수학적으로 계산 가능하고 예측할 수 있는 연장적 사물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카르트의 자연 개념과 사회진화론을 인간 문화에 적용함으로써, 인간과 문화의 고유성을 자연적 에너지로 환원하고 인간주체를 무화시키는 순환에 빠지게 된다.

인간 존재의 주체성이 무화되고 고통의 감각이 소거되었기 때문에, 형세와 미래의 눈에는 “수백이 한덩어리로 엉크러져 산과 들을 정복해나가는 거기”에서 “오직 정복의 찬란한 아름다움밖에”(147) 발견되지 못한다. 둘은 ‘전사’의 흥분에서 정복욕과 피정복욕에 자극받아 사디즘과 메저키즘의 관능성을 서로의 육체에서 탐닉한다. 결국 복지에 빠를 문을 각오로 “광막한 복지의 별관에 선 개척자의 한사람으로서의 미래와 자기와의 영웅적인 환상을 그리면서”(164), 형세는 “운명의 물길“(168)을 쫓아 복지로 떠난다. 그들의 애정 관계도 구시대의 질서로부터의 새로운 질서로의 개혁이라는 의미로 기표화되지만, 정복자나 피정복자 모두 자기의 존재를 실존의 무게가 실리지 않은 하나의 힘, 즉 국가라는 대주체에 수렴되는 ‘운명’과 ‘힘’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형세와 미래의 복지행은 현실을 깊이 있게 조망하고 자기인생을 개척하기 위한 결단으로 서술되지만, 실은 비주체적인 모습이며 봉건적 윤리적 규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カケオチ”(사랑의 도피)일 뿐이다. 소설 첫머리에 인용된 17세기 도덕주의자 라로슈푸코의 잠언처럼, 형세는 철학이 현재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힘과 현실의 논리가 압승하면서, 이 소설은 철학적 인식과 사유를 무화시킨다.

그 결과 인간이나 그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감정조차 사물을 지배하고 통제하면서도 익명의 물화체계 속으로 객체화되고, 이들의 애정의 윤리는 국가라는 대주체를 숙명으로 용인함으로써 힘의 에너지 속으로 기꺼이 회수된다. 이 거대한 힘들의 운동 속에서 인간의 신비스러운 존재는 망각되고 세계에 대한 경이와 타자와의 유대는 기반을 상실해버린다. 사물을 정복하

고 만물을 지배하려는 과학이 자연을 변환 가능한 에너지들의 연관체계로 변모시켰듯이, 다수의 세계와 문명 역시 고유한 존재가 아니라 ‘변환 가능한’ 힘 즉 에너지로만 인식된다. 그 자장의 중심에는 일본이라는 국가라는 대주체가 있고, 그 대주체는 힘과 인식을 모든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연과 개인의 지배자이자 소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자의 문명은 존재 근거를 상실한 것이며 따라서 애정의 감정조차 과학적 법칙에 의해 계산 가능한 자연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애정의 윤리는 봉건적 윤리나 질서가 아니라 국가라는 대주체의 ‘운명’과 ‘힘’에 의해 규정된다. 이때 애정의 당사자는 애정의 주체가 아니라 비주체로 미끄러지는 순환 법칙에 빠진다. 애정의 당사자가 새로운 세계를 정복하고자 욕망하지만, 독자적인 목적을 갖는 존재가 아니라 국가라는 대주체의 새로운 연장적 사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에서는 모든 존재들은 힘의 운명에 따르게 되므로 정복자 자신마저도 즐거이 지배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

4-2. 관능을 절조하는 동양적 도의의 주체

일제 말기, 정비석은 한편으로는 낭만적 주체의 열정이 과학기술의 합리성에 의존하여 전통적인 윤리의 세계로부터 탈주하려고 하였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고향의 세계로 회귀하는 주체의 세계를 그려낸다. 여기서 고향의 세계로의 회귀는 「성향당」과 같은 원초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세계가 아니라 동양적인 도의의 세계를 소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월」⁵³⁾은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버스가 고장 나면서 승객들 간의 “세기적 노도를 극복할 수 있는 협동의 윤리”⁵⁴⁾를 묘사하고 있다. 승객들을 위해 아버지의 대상(大喪)에 쓸 초를 내놓는 강춘보와 마찬가지로 예쁜이 어멈 역시 “대동아공영권을 확립하려는 우리에게”(144) 절실히 요구되는, “이해를 초월한 희생과 인종의 숭고한 정신이야말로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149) 윤리 감각을 지녔다. 이들은 도시적 이기성을 지닌 수달피와 대비되면서, 농촌사람들이

53) 정비석, 한월, 『국민문학』, 1942.2.

54) 편집후기, 『국민문학』, 1942.2, 194쪽.

지닌 “겸양하고 순박”(145)의 표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특히 남편의 배신을 겪고도 폐병으로 죽어가는 남편의 임종을 보기 위해 고향을 찾아가는 이뿐이 어멈은 동양적인 도의의 세계에 순응하는 모습에 다름 아니다. 이뿐이 어멈이나 강춘보와 같은 인물을 「고고 의 춘파선생이나 「김침지」의 김침지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고고」⁵⁵⁾에서 춘파선생이 용읍마을로 귀향하여 “정렬한 애향심”(59)으로 ‘계림원’이라는 과수원을 짓고서 과실의 수확보다는 “마치 생불(生佛)(47)처럼 탈세속적인 태도로 살아가는데, 그가 살아가는 용읍마을이나 계림원은 서구와는 다른 공간성을 주장하는 동양적 문화론과 연결된다.⁵⁶⁾ 요컨대 고향의 세계로 회귀하는 작품들에서 정비석은 근대의 직선적 시간관이 아니라 개체를 초월하는 순환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수달피’와 같이 개인의 이기적 욕심만 차리는 서구의 개체주의를 초월하고 윤리, 즉 ‘이뿐이 어멈’이나 ‘춘파선생’이나 ‘김침지’처럼 인고와 근면이 직분의 윤리로 체화된 주체들의 세계이다. 이들에 의해 소환된 향토적 질서는 물리적 빈 공간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 즉 전체적 질서 속에 협력하는 관계의 장소이다.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그것’의 윤리가 된다.

‘지금 시대’라는 시국적 관점에 작동되면서, 동양적인 정신의 세계가 강조되는 것과 동시에 관능성도 애정의 윤리와 통합되면서도 극도로 절제된 양상을 「山の憩ひ」⁵⁷⁾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서구 특히 미국 기독교를 부정적 대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근대 초극이라는 시국적인 색채가 배면에 깔려 있다. 주인공인 ‘나’는 미션 스쿨 교사인데, 한해 여름을 애라와 함께 산장에서 보낸다. 제주도로 전도연설 갔을 때, 애라가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녀를 잃은 상실감을 성서에 의존하여 위로받으려 하지만, 성서가 “나에게는 전혀 무의미한,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잠꼬대로밖

55) 정비석, 「고고」, 『문장』, 1940.3.

56) 이런 탈속적 태도에 대해 하세가와 니요제칸(長谷川如是閑)은 1935년 에 “외형상 문명을 원시적으로 환원시키는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원시적 형태를 무한히 세련시키는 감성의 작용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長谷川如是閑, 『日本の性格』, 岩波書店, 1938. 61쪽. 진영복, 민족적 주체구성과 글쓰기 양상, 『어문론총』, 한국문학언어학회, 2005, 358-359쪽, 각주 12) 참조.

57) 정비석, 「山の憩ひ」, 『신시대』, 1943. 4-5.

에 느껴지지 않았다.”(4월-143) 애라의 2개월 주기를 앞두고 산장을 찾은 나는 애라를 잃은 상실감과 비애감 때문에, 신이 아닌 애라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상실감을 극복 못한 나에게 애라의 친구인 옥채가 살로메같이 오염한 자태로 신혼여행 오듯이 찾아온다. 학교를 그만둔다는 나의 말에, 옥채는 “결국 미션 스쿨 같은 건 신체제가 아니잖아요. 예수교 같은 건 오랑캐들의 위선의 껍데기예요”(5월-156)라고 응수한다. 옥채는 기독교가 현존의 삶을 거부하고 내세만을 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기독교 정신의 무가치함을 비판하는 옥채의 말에 “나는 갑자기 잠을 깬 느낌.”(5월-156)을 받는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생활을 희생하였고, 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얼마나 게을리하여 왔던”(5월-157)가를 반성한다.⁵⁸⁾ 한편 망자를 추억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나와 달리, 옥채는 망자를 애도하는 것이 오히려 망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생을 영위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망자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옥채를 통해, 나는 비로소 “감상향락자”(5월-157)이었음을 반성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정화하는 자세에 지나지 않는 애도의 자세에서 벗어나 조상과 국가를 사랑하는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고 깨닫게 된다.

옥채가 관능성과 시국적 적극성을 겸비한 여자였다면, 산장지기 김서방의 처 순실은 이지적이며 영리하며 희생적이고 순종적인 여자이다. 그녀는 아픈 애라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주고, 내가 죽은 애라를 연상할까봐 애라가 좋아하던 코스모스 대신 들국화를 심겠다고 할 정도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이다. 그런 순실에게 그녀의 남편은 나와야의 관계를 의심하고 폭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부당한 남편에게 항거하지 않고 인종(忍

58) 이 작품은 총독부의 국체 명령과 관련이 있다. 내세관을 버리고 현실의 “대지에 튼튼하게 뿌리를 박은 정신”, 즉 신체제에 눈떠가며 기독교를 배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미나미 지로 총독이 취임한 이래 국체 명령의 한 방면으로 신사참배가 권장되었는데, 기독교에서 가장 심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션계통 학교는 종교적 입장에서 거부하고, 1937년 9월 광주 소피아 여소와 숭일보교, 전주 신흥학교 및 기전여교, 기타 목표의 정명, 영흥학교 등에 폐쇄령을 내린다. 결국 1938년 4월 25일 서대문 경찰서에서 각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 신사참배를 하는 결의와 선언문을 채택한다. 임종국, 앞의 책, 351쪽.

從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떠나겠다는 나의 말에는 실망의 빛과 순수한 사랑의 눈빛을 건네는 방식으로 열정적 사랑을 내면에 간직한다.

이 소설에서 옥채가 살로메와 같은 관능미를 띤 여자라면, 순실은 동양적인 인종의 미덕과 순수한 청초함 속에 관능미를 감춘 들국화 같은 존재이다. “순실은 생을 과내려 가려고 하고, 옥채는 생을 강하게 확대하여 가려고 한다. 그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이 다 적극적인 태도는 마찬가지”(5월-162)로 현존의 삶에 대처하는 여성들인 셈이다. 옥채의 관능미가 시국에의 참여의 힘과 결합되든지, 순실처럼 인종적인 부덕으로 윤리적 순수함을 지키며 자기 직역에서 열심히 일하든지, 그들의 애정과 삶은 모두 국가로 회수된다. 관능미조차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요구하는 국가라는 대주체의 이상과 결합한 것이다. 이처럼 옥채/정신, 요부형/순종형, 동양/서양은 모두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필수적 요소로 국가적 대주체 속으로 수렴됨으로써, 그것은 사회적 힘으로 의미화된다. 에로티시즘의 낭만적 열정이 국가와 조화되면서, 윤리의 경계에 선 낭만적 주체처럼 햄릿형의 우유부단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과단성 있고 힘 있는 면모를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추동한다.

요부형과 순종형의 여성이 동양적 도의 속에 조화롭게 공존하는 양상을 귀향하는 서사인 「국화진열」⁵⁹⁾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주인공 성수는 “핸드백을 가슴에 품고”(61) 있는 현대적인 여성 미라와 “보채기를 가슴에 품은 채”(61) 서 있는 아내의 전송을 받는다.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미라의 말마따나 성수 자신이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린 탓”(62)인지, 오히려 국화의 성품을 닮은 아내와 미라를 모두 그리워한다. 그가 도착한 고향은 실제적인 삶의 터전이 아니라 동양적인 정신의 세계를 소환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내는 침착성을 보이는 ‘제관’, 미라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전택장’이라는 동양적인 도의를 상징하는 국화로 규정된다.

정비석 소설 패턴에서 여성의 관능미에 대한 접근방식은 요부형과 순종형로 대별되지만, 「山の憩ひ」, 「국화진열」 등에서처럼 상호보완적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은 위계적이다.⁶⁰⁾ 「愛の倫理」⁶¹⁾을 보면, 「국화진열」처럼 여성

59) 정비석, 「국화진열」, 『문장』, 1940.12.

60) 이는 주로 장편소설에서 드러나는데, 해방 후 연애소설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패

을 관능을 자극하는 꽃에 비유하는데, 처녀 채옥과 미망인 정은부인을 각각 패랭이꽃과 질경이꽃으로 상징한다. 패랭이꽃처럼 순결한 처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는 정은부인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신체의 자아 독립성과 에로티시즘이 동양적인 도의의 세계로 소환하는 방식이지만, 여성을 전통적인 가부장적 윤리로 위계화시키는 젠더 전략이기도 하다. 특히 『삼대 나』 『山の憩ひ』 등에서처럼 서구적 에로티시즘은 국가로 수렴될 경우는 긍정적이지만, 「제신제」⁶²⁾나 『화풍』, 「청춘의 윤리」에서처럼 개인의 욕망 충족과 사랑의 쟁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표출될 때는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⁶³⁾ 「행복」⁶⁴⁾은 동양적인 도의의 세계로 소환되는 여성의 삶을 그리고 있다. 가장인 남편은 지원병에 자원해 합격하여 훈련소에 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대신해

턴이다.

- 61) 정비석, 『愛の倫理』, 『문화조선』, 1943. 인용 텍스트는 大村益夫·布袋敏博 編/解説, 『近代朝鮮文學日本語作品集 : 1939~1945-創作篇』 5 小説, 綠蔭書房, 2001, 77-81쪽.
- 62) 「제신제」는 「문장」 1940년 10월호 목차에는 배치되어 있으나, 검열로 인해 다른 소설과 함께 『문장』지에서 전편 삭제 당한다. 그 후 1943년에 『山の憩ひ』로 개작되어 발표되고, 해방 후에 발표된다. 정비석이 자신의 초기소설을 해방 후 모두 개작이나 윤문을 한 것처럼 「제신제」에서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의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해방 후 판본을 확인하면, 제신제 역시 『山の憩ひ』처럼 서구적이고 살모메와 같은 애경과 지고지순한 품성의 순실이 대비된다. 그러나 주인공 희순은 언니를 추모하겠다는 명분으로 자신을 찾아온 애경보다 지고지순한 순실의 미에 감동한다. 애경관과 젠더 입장에서 보면, 동양적 윤리의 틀 속으로 신체의 자아 독립성과 에로티시즘이 수용되는 구도는 위계적이다. 그런데 이 작품이 검열에 걸린 이유를 추측해보면, 언니가 죽자 여동생이 언니의 정인을 유혹한다는 장면이 도덕적 윤리를 헤치고, 지나친 관능의 추구가 시국적 상황과 맞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비석, 『제신제』, 수선사, 1948.
- 63) 「화풍 과 「청춘의 윤리」은 초기 장편소설로, 서구적인 여성상을 국가라는 대주체에서 배제시킨다. 특히 「태풍」의 채영은 살모메적 요부형으로, 애정을 쟁취하기 위해 거짓 계락을 꾸며 명호와 결혼한다. 반면에 명호와와 결혼을 포기한 인애는 동양적인 희생정신으로 명호의 아이를 낳아 기르는 지고지순하고 승고한 여성이다. 결국 소설은 채영의 반성과 인애와 명호의 결합으로 끝나면서 요부형 인물이 부정된다. 「청춘의 윤리」에서도 영옥은 우정에 호소하여 친구 장현주를 단념시키고 주성호와 결혼하는, 즉 사랑을 쟁취하는 인물이다. 정비석, 『화풍』, 『매일신보』 1940.8.17.~11.16; 정비석, 『청춘의 윤리』, 평범사, 1944.(평범사에서 1943년에 1쇄 출판)
- 64) 정비석, 「행복」, 『半島作家短篇集』, 朝鮮圖書出版株式會社, 1944.

어린 시동생과 연로한 시아버지와 함께 집안경제를 돌보며 후방을 책임지는 이야기이다. 아이가 태어나자, 남편은 “남자 아이가 태어나서 무엇보다 다행입니다. 한 명의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빠꾸어 말하면 그만큼 국가가 강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20)라며 이들의 이름을 “건민건병(健民健兵)을 위해 건강한 뜻과 생각을 품”(20)은 아이가 되라는 뜻에서 켄지(健志)로 짓는다. 이에 따라 여주인공 서분녀는 가족과 국가를 위해 충량한 국민을 양산하는 모성으로 기호화되고 전장으로 동원된 남성을 대신하는 후방의 노동을 책임지는 여성이 된다. 국가라는 대주체에 의해 애정 관계의 남녀나 가족은 전체 국가의 구성단위로 수렴되어 버리므로, 성적인 관능성이 투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충후의 부인은 전장에 나가 부재중인 남편을 위해 정절을 지키려면 관능성의 절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정비석의 초기 단편소설에 나타난 애정의 윤리와 주체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1930년대 고향상실이 진행되는 시기에 정비석은 고향으로의 회귀를 욕망하는 본능적 주체를 통해 애정을 관능미와의 조화를 소망한다. 그가 그려낸 고향 세계는 원초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즉자적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주체는 신앙의 절대적 대상이나 숭고한 자연적 질서의 한 부분으로만 존재하는 반근대적 주체이다. 반면에 근대적 제도와 문명 속에서 근대적 개인으로 탄생한 낭만적 주체들은 자아의 극단적 확장을 욕망한다. 자아와 세계의 이자적 관계인 낭만적 주체는 관능과 열정적 사랑을 욕망하지만, 늘 현실적 규제 장치인 봉건적 윤리와의 경계에서 비밀스럽고도 조심스럽게 존재할 뿐이다.

일제 말기 정비석의 소설에서 본능적 주체와 낭만적 주체가 지녔던 애정의 감각과 윤리는 국가라는 대주체와 유기적으로 통합된다. 국가라는 대주체로 고향의 세계와 자아의 세계가 변증법적 방식으로 통합을 꾀하는데, 한편으로는 애정의 당사자가 열정적 사랑을 하지만 기술 문명의 도구적 합리

성에 의거해 국가라는 대주체의 일원으로 기꺼이 투신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국가로의 열정적인 투신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의 전체성이 존재자들의 조화나 상호관계를 사상한 채 사회진화론에 의지해 물리적 힘들의 우열의 대결이라는 운동에 의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애정의 당사자는 관능을 절조하고 인종과 희생의 정신을 가진 전통적인 도의의 세계를 복원함으로써 국가라는 대주체로 통합된다. 향토성과 동양적인 정신, 전통적인 도의를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다양성을 전체성이라는 일반의지로 포섭하고 있다.

이처럼 일제 말기 정비석 소설에서 애정의 윤리는 순종/희생/모성 중심의 동양적인 가치와 자기중심/지배/관능 중심의 서구적 가치가 대립하면서 제기되지만, 『삼대』나 『山の戀ひ』, 『국화진열』을 제외하고 결국은 가치의 싸움에서 동양적인 것의 승리를 확인하는 담론으로 조직된다. 그 가운데 전통적인 가부장적 윤리로 여성을 규제하는 젠더 전략이 잠재해 있다. 그리고 그 자장의 중심에는 명시적이든 아니든 일본 국가적 전체성이 있고, 그 전체성의 심급인 국가라는 대주체에 개인들이 수렴되고 있다. 이런 전체성에 대한 감각은 일종의 전체 원리 혹은 운명의 논리를 확산하는 감각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삼대』나 『제3의 운명』처럼 자연과 세계를 지배하는 기술문명적인 힘의 확장을 추구하는 가장 근대적인 것=서구적인 것과 이 서구적 논리를 거부하고 동양적 세계로 회귀하는 소설은 국가라는 원근법적 소설점으로 강제적으로 수렴된다. 반근대적 동양의 세계와 근대적 기술문명의 세계가 이질적이어서 서로 조우할 수 없는 요소가 국가를 매개로 강제적으로 회수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대동아공영권의 본질은 기술문명을 이용한 자연의 지배와 영토 확장이고, 이 전쟁의 명분을 쌓고 국민을 동원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동양적 도의 세계 건설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동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술문명의 확장 즉 전쟁의 확장이 먼저 오고 전쟁이 고착화되었을 때 동양적 도의세계가 강조하는 소설 창작이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추론할 수 있다.

일제 말기 정비석 소설에는 식민주체와의 동일시를 통해 조선과 일본의

내선일체적 동일시와 시국협력을 통해 제국/식민지의 경계를 초극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꿈꾸는 새로운 식민 주체의 사고가 깔려 있다.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고, 식민화함으로써 피식민의 차이와 차별을 지우고자 하는 탈식민의 욕망은 식민주체와의 동일시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정비석의 소설은 이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또한 반근대와 근대적 세계를 강제적으로 묶어놓았던 국가의 자리에 해방 후에는 민족이라는 기표가 자리하게 된다.

참고문헌

- 김병걸, 『친일문학작품선집 2』, 실천문학사, 1986.
- 박찬국, 『들길의 사상가 하이데거』, 동녘, 2004.
- 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83.
-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79.
- 정비석, 『소설작법』, 문성당, 1957.
- 정비석, 『소설작법』, 신대한도서주식회사, 1946.
- 大村益夫·布袋敏博 編/解説, 『近代朝鮮文學日本語作品集 : 1939~1945-創作篇5
小説』, 綠蔭書房, 2001.
- 今村仁司, 이성혁·이혜진 역, 『화폐 인문학』, 자음과모음, 2010
- Berlin, Isaiah, 강유원·나현영 역, 『낭만주의의 뿌리』, 이제이북스, 2005.
-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두행숙 역, 『헤겔미학 1-미의 세계 속으로』, 나남
출판, 1996.
- Lovejoy, A. O., "Chap X", The Great Chain of Being, Oxford Univ. Press, 1964 최상
규 편, 「낭만주의의 충만의 원리」, 『낭만주의 문학의 재조명』, 예림기획,
1998.
- Metscher, Thomas & Szondi, Peter, 여균동·윤미애 역, 『헤겔 미학입문』, 종로서적
1983.

Abstract

The Study on the ethics of affection and the problem of the subject on Cheong, Bi-seok's Early short Novels

Kim, Hyun-Ju (Hanyang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d the ethics of affection and the problem of the subject on the early short novels of Cheong, Bi-seok, which is the work written by him before liberation In 1930' during the loss of one's home was running, Cheong, Bi-seok wished to be balanced between affection and charm through the instinctive themes that desires to return to home. As the home world that he wrote is the immediate space where the instinctive desire is met like [Seonghwangdang-shrine to the village deity], the subject of this space is existed as the unconditional object of faith or as the anti-Modern subject that is even a part of natural noble order, On the other hand, the romantic subject that was born as a modern individual in the modern system and civilization desires to extend extremely Self rather than return to home like [affection]. The romantic subject t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and the World desires sensuality and passionate love, but it is only existed secretly and carefully in the border with feudal ethic that is the tool for regulating the reality.

In the Cheong, Bi-seok's novels for the end of Japanese colonization era of Korea, the feeling affection what the instinct subject and the romantic subject had is united organically with a nation as the great subject. While the home world tried to be unified with World of Self by dialectic with the great subject, a nation, as you see [Three-generation],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with affection loves passionately, however it is realized by the way that he devotes himself to be a member of the great subject, a 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ational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reason why he could devote himself to a nation is that it is based on beliefs which totality of the world can be changed the World by a confrontation of physical strength depending on Social Darwinism, keeping harmonization of beings and idealization of mutual relations. On the other hand, as it appears in [Han Wol],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with affection can be unified with the great subject, a nation by controlling sensuality and restoring the oriental morality world that has respects ethnic and spirit of sacrifice. It has been winning the diversity of individuals to totality by highlighting the indigenous characteristics,

oriental spirit and the traditional morality.

(Keywords : Cheong, Bi-seok, Early Novels, short novels, affection, ethics, subject, home, instinct, passionate love, romantic, nation.)

학술대회 발표일 : 2011년 10월 22일 대중서사학회 정기학술대회 기획발표

투고일 : 2011년 10월 30일 정식 투고

심사일 : 2011년 11월 5~23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1년 12월 3일 수정제출

계재확정일 : 2011년 12월 10일 계재확정